

신령한 예배
찬구일꾼 양성
만족 복음화
세계 선교
아름다운 사람

주간충현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시편 18:1)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빌립보서 1:21)

대한예수교 장로회 **충현교회**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65-1 ☎ 02-552-8200 © 2005 충현교회

THE WEEKLY CHOONGHYUN

발행인: 김성관 편집인: 노광현 편집: 양재웅

이번 주 주·목요일(20·21일) “영아부~소년부” 여름 성경학교

예수님을 닮은 충현의 어린이들을 위한 여름 성경학교가 이번 주 수요일(20일), 목요일(21일) 양 일간에 걸쳐 진행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 증인”(원 1:3)의 주제를 통해서 예수님만을 전하는 전도자로 훈련받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선생님들만으로는 물론 평일에도 교회에 나와서 성경학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금번 여름 성경학교는 말씀, 기도, 복음 중심의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린이들이 십자가를 깨닫고 예수님을 배우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특별한 영아부, 유아부, 유치부는 부모님들의 협조가 더욱 절실합니다. 어린 아이들이 혼자서 성경학교에 나올 수 없기 때문에 부모님들이 함께 데리고 나와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교회에서는 어린이들을 선생님들이 책임지고 돌보며 가르칠 것입니다. 또한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는 교회에서 하루 잠을 자기 때문에 부모님들은 필요한 준비물들을 잘 챙겨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여름 성경학교를 통해서 충현의 어린이들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사랑의 관심과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 각 부서의 성경학교 장사는
주일 예배 장소에 동일합니다.

2005년 상반기 단기 선교를 돌아보며!

“... 은혜 위에 은혜라”(요 1:16)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중심이 불발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렘 20:9)라고 고백했던 예레미야처럼 충현의 성도들은 침묵할 수 없었습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빌 3:9) 선교지를 향해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123개팀 1,145명(2005년 7월 16일 현재)이나 되는 십자가 증인들이 복음을 전혀 접하지 못한 지역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주신 2005년 선교 비전인 2,500명 이상의 단기 선교사 파송을 위해서 역동적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돌아볼 때 참으로 주님의 놀라운 은총이었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분은 건강이 좋지 않음에도 죽으면 죽으리라 믿고 믿음으로 나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직장인들은 실직의 위험 속에서도 굴하지 않고 선교를 결정했습니다.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은 학업의 큰 짐이 있었지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더 우선했습니다. 이 외에도 선교를 나갔거나 현재 준비 중에 있는 많은 분들은 오직 주님의 말씀(막 16:15)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는데 힘을 쏟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 8월까지 어린 중등부 학생들을 포함한 많은 선교팀들이 선교지를 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더욱 근신하여 주님의 은총을 구해야 합니다(다행전 1:13). 모든 십자가 증인들이 인간적인 방법과 경험을 버리고 오직 성령의 인도에 따라 복음만을 전할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 주십시오.

(선교 기도회 매주일 길리리움, 오후 4:00~4:40)

*이번 주 수요일(20일) 교구 영성훈련 안내

여름 성경학교 관계로 이번 주 교구모임은 수요일 예배 후에 본당에서 전 교구가 함께 모여 영성훈련을 합니다.

【말씀으로 풍성한 그릇 (금요집회)】

악의 근원과 영향



하나님께서 악을 직접적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나. 하나님의 계획은 창조물의 세계 안에 악이 들어온 것을 허락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창조하신 것이 천사들이다. 이들은 우주가 실제로로 만들어지기 전에 창조되었다.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하고 선한 것이었다. 천사를 역시 자유 의지를 가지고 창조되었기 때문에 자기에게도 잘못된 결정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다. 자기의 자유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의 처사를 떠난 천사들이 있는 것이다(유 6). 사탄과 함께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보다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선택한 것이 대배우 24-50.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들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다고 창세기 6장에 노아의 홍수전의 사상을 언급하고 있다. 이 자기 중상적이고 교만한 것이 죄와 악의 원인이 되었다(창 6:1-3). 타락한 사탄은 애먼 동굴에 나타나 인간을 유혹하였다. 천사와 인간의 타락은 다 한 가지로 하나님의 길보다 자기의 길을 택한 데에 있는 것이다. 두 타락 사이에 크게 다른 것은 첫 번째 타락한 사탄의 타락은 모든 천사들이 그 지에 함께 있었다는 것이고, 인간의 타락은 오직 아담과 이브가 있었다는 것이다. 천사들은 멀리 인간은 자신을 배설하도록 지음을 받았으므로 인류의 조상이 뱀으로 인하여 모든 인류가 구사일 필요하게 되었다(롬 5:12, 5:17, 창 3:6, 19). 그러므로 악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천사와 인간의 타락으로 온 것이다. 성경에서는 이것만이 악의 근원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성경적인 대답에도 중요한 문제가 아직 남아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에 ‘형상’을 갖춘 것만을 택할 수 있는 피조물을 만드실 수는 없었을까 하는 것이다.

첫 번째 견해로는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서 피조물들을 늘 겸손하게 있도록 하시지 않는 한, 그들의 자유 의지는 죄를 범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장한다.

두 다른 견해는 하나님께서 먼저 전능하시다면 이 죄악을 포함한 그의 계획이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이 계획만이 오직 기뻐하시는 주장(다행전 11:10).

성경은 또한 천사들보다 타락에 근거하고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창 3:17-19).

우리가 영원히 거할 천국에는 생명의 강이 흐르고 생명수가 열두 가지 실로를 맺으며 다시는 주기가 없을 것이다(계 22:1-3). 현재의 자연계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과는 같지 않은 것이다. 비정상적이다. 성경은 죽음이 없어야 함을 가르치고 있다. 인류의 범죄 전에는 죽지 않는 것이 없었다고 전 15:21-22. 동물까지도 모두 채식을 하도록(창 1:29-30). 악의 영향은 대단한 것이었다. 이 주자가 버섯과 때 곧 그리스도께서 통치하시며 새 하늘과 새 땅이 나타날 때에는 동물들도 다시 풀을 먹을 것이다.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다. 그리스도를 지목하고 있다(사 11:1-2). 자연도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활할 때에 구속함을 받을 것을 성경은 언급하고 있다(사 11:6-9). 놀라운 비밀이다(롬 8:18-23). 죄가 이 땅에 주를 가져왔으므로 죄가 떠날 때에는 자라도 함께 떠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성경적인 가르침은 곧 천사와 인간의 타락이 죄악의 근원임을 설명하고 있다. 성경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사탄의 악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전지 전능하시고 신성한 보심을 가지고 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하나님께서는 천상의 회의를 하고 불쌍한 인간들을 위하여 일을 행하시라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의 두 동생 아들들을 보내서 우리를 위하여 죽게 하므로 인간이 그 엄청난 주자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게 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 없으신 하나님이며, 인간 아닌 본으로 죄악을 이기어 극복하고 오신 것이다(요 8:12). 이렇게 하므로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함을 증명해 주셨다(골 5:8, 요 14:9-10).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들의 고통과 죽음을 포함한 계획을 선택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실 때에 가뭄이 없는 것이었다. 최악의 모습,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까지도 그의 계획 안에 있었던 것이다.

LOT'S CHOICE

⁽⁸⁾Then Abram said to Lot, "Please let there be no strife between you and me, nor between my herdsmen and your herdsmen, for we are brothers. ...⁽¹¹⁾So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valley of the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ward. Thus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¹²⁾Abram settled in the land of Canaan, while Lot settled in the cities of the valley, and moved his tents as far as Sodom. ⁽¹³⁾Now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exceedingly and sinners against the LORD. (Genesis 13:8-13)

After God called Abraham to "Go forth from your country, and from your relatives and from your father's house, to the land which I will show you," he took Sarah his wife, Lot his nephew, his retinue, all their possessions, and set out in God's direction (Gn. 12:1). God promised Abraham,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and I will bless you, and make your name great; and so you shall be a blessing; and I will bless those who bless you, and the one who curses you I will curse. And in you all the families of the earth shall be blessed" (Gn. 12:2-3). For Lot, it was an exciting time knowing that the Creator, King of kings, and Mighty God had directly blessed his uncle. He immediately followed Abraham because he believed the words God spoke to his uncle. He wanted to be a part of the blessing. He saw it as a once in a lifetime opportunity, which it was. As time passed, Abraham and Lot became very rich in livestock, silver, and gold (Gn. 13:2, 5). Their material wealth flourished to such an extent that the land they lived on could not sustain them both; it became necessary for them to separate (Gn. 13:6). When their herdsmen began fighting amongst themselves, Abraham asked Lot to choose which land he wanted; "if to the left, then I will go to the right; or it to the right, then I will go to the left" (v. 9). He gave Lot first choice. What was Lot's choice?

Lot based his decision on worldliness. He lifted up his eyes and saw that the valley of Jordan was like "the garden of the Lord" (v. 10). His lack of religion and generosity combined with his surplus of greed and selfishness caused him to forsake all others in favor of what he thought well. Up to this time, he followed God and Abraham, now he proceeds to go his own way, thinking he is great. Having first choice made it a difficult test for him. Instead of asking his uncle to choose first, and he go the other way; his greed caused him to be ungenerous. James 1:12 says, "Blessed is a man who perseveres under trial; for once he has been approved, he will receive the crown of life which the Lord has promised to those who love Him." Lot miserably failed his trial because of his self-interest. All his blessings came through Abraham from God because he listened, but now he changes and his mind focuses on other things. He no longer considers himself dead to immortality, impurity, passion, evil desire, and greed, which amounts to idolatry (Col. 3:5). Romans 12:10 says, "Be devoted to one another in brotherly love; give preference to one another in honor." Lot showed no honor or appreciation to Abraham, but instead took care of his wealth first. All that was good in his life he credited to himself, and all that was wrong he looked for someone to blame, so that it would not be his fault.

We must fix our hope in God from our heart, not our own desires, "For it is for this we labor and strive, because we have fixed our hope on the living God, who is the Savior of all men, especially of believers" (1 Tim. 4:10). Lot's decision brought him closer and closer to Sodom and Gomorrah, "Now the men of Sodom were wicked exceedingly and sinners against the Lord" (Gn. 13:13). Lot entered the valley of the Jordan thinking it was paradise, but it was not so. 2 Corinthians 6:17 says, "Therefore, come out from their midst and be separate, says the Lord. And do not touch what is unclean; and I will welcome you." All too often people think that going off to Las Vegas to gamble every now and then is acceptable, or flirting with business associates sometimes is fine, or just plain having fun at someone else's expense is okay. It is not.

Lot's course of action slowly led him further and further down the worldly path. He walked away from the spiritual side of life and headed towards the physical side. He eventually ended up living in the city of Sodom, which was extremely perverse, wanting his two daughters to marry there. Philippians 3:2 warns, "Beware of the dogs, beware of the evil workers, beware of the false circumcision." Lot was not aware because his mind was on worldly things, "Set your mind on the things above, not on the things that are on earth" (Col. 3:2). His eyes focused on physical beauty, just like Eve's eyes, "When the woman saw that the tree was good for food, and that it was a delight to the eyes, and that the tree was desirable to make one wise, she took from its fruit and ate; and she gave also to her husband with her, and he ate" (Gn. 3:6). David also set his eyes upon Bathsheba. When you look around at worldly things, the devil always shows you something nice. He loves to delight the eyes of believers. Lot's eyes saw the beauty of Jordan, "So Lot chose for himself all the valley of the Jordan, and Lot journeyed eastward. Thus they separated from each other" (Gn. 13:11). It always starts in the eyes, works its way to the heart and emotions, and then moves to the rest of the body. Many Christians look at beautiful people, places, and things with Lot's eyes, forgetting their faith. Joshua 24:15 says, "If it is disagreeable in your sight to serve the Lord, choose for yourselves today whom you will serve; whether the gods which your fathers served which were beyond the River, or the gods of the Amorites in whose land you are living; but as for me and my house, we will serve the Lord." Joshua followed the right path, while most Israelites chose the wrong one.

Lot's choice resulted in a curse, not a blessing. His worldly calculations were wrong. Abraham chose God, "And Abraham believed God, and it was reckoned to him as righteousness, and he was called the friend of God" (Jas. 2:23). Abraham went with God all the way, not with his own heart, but Lot choose his own heart. His home burned, his wealth disappeared, his wife died, and his two daughters disrespected him. He lost the presence of God because his spiritual life was secondhand, not first priority. Indeed, he called on God, but he believed in other things more. Jesus said, "He who believes in Me, as the Scripture said, 'From his innermost being will flow rivers of living water'" (Jn. 7:38). If you call on Jesus with all your heart and soul, He will save you, "whoever will call on the name of the Lord will be saved," not temporarily but eternally (Rom. 10:13). God is "rich in mercy" and full of grace (Eph. 2:4). Lot did not receive His grace because he went his way. Jesus said that we must deny ourselves, but Lot did not do it. His own desires came first. He did not belong to God but to the earth, the devil,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the free gift of God is eternal life in Christ Jesus our Lord" (Rom. 6:23).

My dear friend, you have heard God's message, filled with rich and eternal blessings. It is up to you to choose. "And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among the thorns, thi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the worry of the world and the deceitfulness of wealth choke the word, and it becomes unfruitful" (Mt. 13:22). "And the one on whom seed was sown on the good soil, this is the man who hears the word and understands it; who indeed bears fruit and brings forth, some a hundredfold, some sixty, and some thirty" (Mt. 13:23). I hope you choose for His Word to fully encompass your heart. Amen. 

다음을 주일 설교

롯의 선택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골육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말자 ...” (12)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13)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하였고 롯은 평지 성읍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14)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 (창세기 13:8-13)



김성환 목사

아브라함과 롯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후에, 아브라함은 아내 사라, 조카 롯을 비롯한 모든 권속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를 이끌고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으로 떠났습니다(창 12:1).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너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창 12:2-3). 롯에게 있어서는 창조주요 만왕의 왕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삼손에게 직접 축복하셨다는 사실이 참으로 흥분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아브라함을 따라나섰습니다. 롯은 하나님께서 삼손에게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는 자신도 그 축복을 받게 되기를 원했습니다. 롯은 이것을 평생에 한 번 출가 말까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실제로도 그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아브라함과 롯은 부자가 되었고, 가족과 은금이 풍요롭게 되었습니다(창 13:2,5). 그들이 가진 소유가 너무 많아 지금까지 함께 하던 땅에서 더 이상 갈기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서로 떨어져야 할 필요를 느꼈습니다(창 13:6). 가족을 치른 자가운데서 다들이 일어나자 아브라함은 롯에게 원하는 땅을 선택하라고 말했습니다. “~내가 좌편이나 우편으로 네가 우하리나 너는 좌하리라”(9절). 그는 롯에게 먼저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습니다. 롯이 선택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을 위한 선택

롯의 선택은 전적으로 세속적인 것에 기초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가 눈을 들어 요단 들을 바라보니 마치 “여호와와 동산” 같이 보였습니다(10절). 신앙심이 없고 그러하지 못했던 그는 욕심과 이기적인 마음에 눈이 멀어 세속적으로 좋아 보이는 것을 택하려고 다른 유익한 것을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아브라함을 따라갔지만, 이제 자신도 꽤 큰 유익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자 롯은 자신만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으로 해 보는 선택은 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어려운 시험이었습니다. 삼손에게 먼저 선택권을 주어야 하였지만 자신이 먼저 선택하였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다른 길로 갔습니다. 그의 욕심이 그의 마음을 강박하게 만들었습니다. 야고보서 1:12은 말합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이 옳다 인정성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니라” 롯은 불행하게도 자기 중심적인 마음 때문에 시험에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받은 모든 축복들은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을 청종했기 때문에 얻은 것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는 변했고, 그의 마음은 온통 다른 것에 쏠려 있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유언과 부흥과 사육과 약한 축복과 우상 숭배와 같은 탐심을 억제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골 3:5). 로마서 12:10은 말합니다. “행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롯은 아브라함에게 존경심도 감사도 표시하지 않고 자신의 욕심만 쫓았습니다. 롯은 잘못된 일을 모두 자신이 독해해서라고 생각했고, 잘못된 일은 자기 잘못이 아니라 남의 탓이라고 여겼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도하고 전력하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 계신 하나님께 돌리니 곧 모든 사람처럼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딤후 4:10). 우리의 결정은 점점 더 그 소를 소들과 모라리 이롭습니다. “소돔 사람은 악하여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었더라”(창 13:13). 롯은 요단 들을 지상의 낙원이라고 여기면서 들어섰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고린도 후서 6:17은 말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많은 사람들이 유흥가에 가서 도박을 하고, 회사 동료들과 시식거리려는 일종은 매수령까지 알게 생각합니다. 자기 돈으로 즐기겠다는 데 뭐라고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향한 선택

롯이 행동을 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점점 더 세상을 향해 내려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인생의 영적인 곳을 떠나서 육적인 곳으로 향했습니다. 결국 그의 인생의 행로는 소돔에서 떠났습니다. 소돔은 극도로 죄악이 관영한 곳이었지만 그는 그곳에 머물러 살면서 자신의 두 딸을 출가시키길 원했습니다. 빌립보서 3:2은 경고합니다. “게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손 할례당을 삼가라” 롯의 영혼은 둔감해져 있었습니다. 이미 그의 마음이 세속적인 것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3:2은 경고합니다. “위엿 것을 생각하고 땅엿 것을 생각지 말라” 그는 하와처럼 눈에 보이는 아름다운 것에 미혹되었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며 그도 먹은지라”(창 3:6). 닥터 또한 뱀에게서 눈을 졸음으로 멀어 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세속적인 것에 눈을 돌릴 때면, 머리는 그 순간을 기다린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빼앗을 만한 좋은 것들을 보여 줍니다. 머리는 능숙한 솜씨로 신자들의 눈을 현혹시킵니다. 롯의 눈은 요단의 아름다운 물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들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창 13:11). 유흥은 언제나 보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그것이 마음과 감정에 작용하고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롯의 눈으로 매혹적인 사람들, 맛있는 장소,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바라보다가 자신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잊어버립니다. 여호수아 24:15은 말합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열조가 저 지역에서 삼기던 신이든지 혹 너희의 거하는 땅 아모리 사람의 신이든지 너희 설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잘못은 어땠습니까? 여호수아는 바른 길을 따라갔지만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잘못된 길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선택의 결과

롯의 선택은 축복이 아니라 재앙을 초래했습니다. 그의 세속적인 재산은 잘못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모든 여기했다는 말씀이 옳았다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약 2:23). 아브라함은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항상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그러나 롯은 자신의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결국 그의 집은 불에 타서 없어졌고, 재산은 재가 되었으며, 아내는 죽고 두 딸들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행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영적인 삶을 추구했으나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도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가 다른 것들을 더 의지했다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7:38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성령에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만약 여러분이 온 마음과 영혼을 다해 예수님께 부르짖는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롬 10:13). 이것은 일시적인 구원이 아니라 영원한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공중에 풍성하시고 은하에 미치지 않는 분입니다(창 24). 롯이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은 자신의 뜻대로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아니라 이 땅, 곧 마귀에게 속한 자였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결론짓습니다. “죄의 삯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롬 6:23).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영원한 축복으로 가득 찬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가시떨기에 뿌리깊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의 유혹에 마음이 막혀 결실치 못하는 자요”(마 13:22). “좋은 땅에 뿌리깊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는 자라 결실하여 옥 배, 옥 배, 옥 배를 맺는 자요”(마 13:23). 여러분의 마음이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권사회

십자가를 깨달은 천국 잔치

“...내 지은 죄 주홍빛 갈대라도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흰보다 더 정화됐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찬 470장). 온갖 풀들이 푸르며 지난 6월 20일 오전 10시 30분 권사회 천국 잔치를 알리는 주례 찬송 소리가 벌써 갈릴릴에 가득했다. 권사회에 속한 모든 권사님들은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영적인 충진, 무엇보다도 십자가의 예수님을 만나기를 기대하며 기쁜 복음의 잔치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십자가를 깨달은 어머니, 믿음의 어머니, 기도 어머니’가 되게 하소서.’

첫째 날! 성경 암송의 시간은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영적 훈련이었다. 참으로 세월을 잊은 채 팔손을 훌쩍 넘기신 권사님들의 놀라운 암송 능력을 주신 분은 누구신가? 말씀을 암송하시는 권사님들을 보면서 이들을 사랑 가득한 눈으로 보고 계신 예수님의 밝은 모습이 떠올랐다. 열 분의 권사님들이 암송한 빌립보서 2장을 통해서 우리들은 다시 한 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고, 아직 그 말씀이 귓전에서 맴돌고 있는 듯하다. 무엇보다도 시간 시간마다 계속 선포되는 말씀은 실로 메마른 대지를 촉촉히 적시는 단비처럼 저 가운데 살아온 우리

의 죄를 다시 한 번 회개할 수 있는 은총의 기회였다.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순교의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였고,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따를 수 있도록 믿음을 달라고 울부짖는 시간이었다.

둘째 날! 각 지교회로 찬양경연대회(합창, 중창, 이중창, 독창)가 있었다. 바쁜 시간이었지만 주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기쁨을 가지고 틈틈이 모여서 연습한 찬양을 드리는 그 시간만큼은 천국이 따로 없다 싶은 정도로 기쁨이 넘치는 은혜의 시간이었다. “큰 음성으로 가로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다 하리라”(레 5:12).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어린 양 보혈을 찬양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 모두는 다시 한 번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총을 감사하였다.

이번 수련회에도 700여 명이 넘는 권사님들이 참여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은혜를 경험하였다.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났고 구원의 감사를 들었다. 밤 늦도록 이어진 기도와 암송은 성령 충만한 새 사람이 되게 하였다. 특별히 이 은혜를 모른 채 죽어가고 있는 영혼들에 십자가의 복음을 전해야 함을 절실히 깨달았다. 남은 생애 오직 날 구원하신 십자가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는 귀한 그릇이 되게 하소서. “그러나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였느니라 하리라”(행 2:36).

이혜자(권사)



장년 2부 말씀과 기도로 하나 되어

이번 수련회는 장년 2부의 모든 성도들이 한마음이 되어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은총의 시간이었습니다.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간절한 응성은 굳어진 우리 심령을 모두 깨뜨려 주셨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은 때로는 미세하게 들려오는 은하계 어떤 이에게는 소나기와 같이 다가왔습니다. 행사를 위한 수련회, 수련회를 위한 행사가 아닌 철저한 말씀과 기도로 자기 십자가를 지는 믿음으로 예수님 드러나는 수련회가 되게 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던 죄인들의 기도가 응답해 주셨음을 감사할 따름입니다.

자기를 내세워 마음대로 하려고 했던 요나가 바로 나! 자신이 사랑을 회개하면서 그대도 사랑을 하신다! 요나를 끝까지 다듬어서 사용하셨던 것처럼 지금 한없이 죄 많고 못난 죄인인 저를 다듬어가고 계신다! 사랑을 깨닫고 감사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또한 그 은혜를 전하는 증인의 삶을 위해 더욱더 십자가만을 바라보겠습니다.

한호철(집사)

장년 3부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

에바다부

고생이 아닌 감사의 잔치

어느덧 에바다부 여름 수련회가 코앞이었다. ‘아! 또 고생하겠구나.’ 먼저 이런 생각이 나의 머리를 꼭 채웠다. 나처럼 듣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날 생각을 하니 벌써부터 머리가 아파오는 것 같았다. 어른과 아이들이 함께하는 에바다부 수련회에는 많은 말에도 있지만, 가끔은 정성이 없을 때가 많다. 아직 철부지 어린이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나같은 청년부 선생님들이 아이를 한 명씩 끌어안고 예배를 드려야 한다. ‘선교팀 총무와 공부하는 것 때문에 피곤한데 또 이런 일을 해야 되나?’ 생각을 하며 교회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하지만 내 눈에 펼쳐진 광경을 보고 나는 이전에 품었던 나의 믿음 없는 생각을 회개할 수밖에 없었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주님을 내가 잊고 있었다. 나를 위해서 모든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주님을 내가 까먹고 있었다. 나에게 모든 점을 말기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영적인 귀를 막고 있었던 것이다.

조금 늦게 도착한 수련회 장소에서 만난 아이들은 조금 전 내가 상상하던 그 아이들의 모습이 아니었다. 선생님의 말씀에 잘 따르며 열심히 움직이고 있는 천국일꾼의 모습이었다. 수련회 내내 아이들은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선생님들이 정성껏 준비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십자가의 증인들이 되어가고 있는 듯했다. 내가 예상한 것과 달리 고생이 아닌 감사의 잔치였다. 특별히 나는 이번 수련회 기간에 사신 책들을 읽었는데 한 장씩 책을 때마다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었다. 비록 약간의 장에는 있지만 말씀을 통해서 기뻐하는 귀한 장면들을 담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다. 우선 모든 격경, 근심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된다는 사실이다. 두 번째로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하면 주님께서 모든 일을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마 11:28,29).

민경주(교사)



1박 2일 동안 장년 3부 수련회를 기도원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과 기도로 찬양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마철에도 불구하고 좋은 날씨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복음 중심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시고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닫게 하시며 시간 시간마다 주님을 만나고 나 자신이 얼마나 허물 많은 죄인인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적서 주셔서 십자가의 증인되게 하옵소서(엡 2:10).

우리에게 선한 일에 찬배성 되게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죄인의 고백입니다. 성령의 능력과 역사하심으로 말씀이 우리 삶을 온전히 지배하여 그리스도 예수님의 성령을 갖게 하여 오직 십자가만을 전하는 증인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남은 때가 얼마인지 모르지만 우리 인생 여정 길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맡겨 주신 모든 일들을 주님의 은총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옵소서. 아멘.

김성순(권사)

상한 영혼들을 찾아 떠나며...

7월 19일~7월 27일까지

선교지를 향해 나아가는

대학부 선교팀입니다.

오직 십자가만 전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 "십자가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이 세상에 한 사람이라도 남아 있는 한 교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탄식하며 울부짖는 상한 영혼들을 찾아 광활한 대륙을 항하여 달려갑니다. 신실한 일꾼! 중현의 젊은이들이 자원하여 동승하니, '범선'은 담대하게 성령을 좇아 인도양을 항하여 거침 없이 나아갑니다. (이용수 안수집사)

△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 사랑에 매여 즉각적 반응하고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령 주관하셔서 기쁨과 감사함으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과 선교지의 영혼들을 그리고 우리 팀원들을 이진보다 더욱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최두루)

△ 이번이 두 번째 단기 선교입니다. 첫 선교 때에도 함께 하였던 하나님을 이번에도 만나길 원합니다. 준비하는 과정에서부터 귀국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음성에 먼저 귀 기울이고 나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오 현)

△ 현지인들에게 참된 주의 말씀을 전하고 항상 준비된 자세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황현영)

△ 선교를 처음 가는데 많이 걱정이 되기도 하지만, 그곳에서 주님께서 준비해 두신 영혼들을 만나 복음을 전할 생각을 하니 많은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나를 부인하고 온전히 십자가를 지며 주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면서 팀원들과 한 마음 한뜻으로 복음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박연정)

△ 이번 선교에서는 주님께서 어떤 은혜를 부어 주실지 기대가 됩니다. 우리가 부리게 될 복음의 씨앗이 그 나라에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기도합니다. (오민선)

△ 두 번째 가는 선교지입니다. 같은 지역을 몇 번을 다녀와도 그때마다 임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다양합니다. 이전의 선교 경험에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성령님 인도하심에 대로 순종하며 하나님 말씀 듣기를 소망하는 그 곳의 영혼들을 생 각하여 기도로 준비합니다. (이한오)

△ 대학부 팀에서 조끼리 노방 전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대가리가 힘들고 쑥스러워 시작 전부터 주눅이 들어 제대로 해 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런 제가 다른 나라로 선교를 가기로 한 것은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무섭고 두렵고 걱정되는 것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도 하나님이 함께하여 인도해 주시고, 나를 위한 사람들의 기도가 느껴진다는 믿어 큰 은혜가 됩니다. (함예정)

△ 먼저 저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여건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요. 적의 노력이 믿음의 불모지인 선교지에서 믿음의 씨를 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번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선교 끝나는 날까지 하나님께 간구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조지영)

△ 생명을 전하는 것에 기쁨을 누리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피부로, 가슴으로 느끼고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총무로서 팀장님과 팀원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섬겼으면 합니다. (유재혁)

△ 가장 먼저는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싶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해 되어 십자가 복음으로 내 모든 심령을 채워 주시고, 복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나아가고자 합니다. 선교지의 영혼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물에 빠져 헤매는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이승미)

△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 성령 주관한 가운데 선교지의 죽어 가는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그 곳에 먼저 가서서 영혼들을 준비해 놓으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정다희)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

같은 하늘 아래 살지만 언어, 문화, 풍습, 전통 모든 것이 다른 나라. 사원이 많아 화려한 반면 주민들은 마치 축사와 같은 곳에 사는 것을 보며 어서 빨리 사원이 무너지고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예배당이 이 땅 위에 세워졌으면 하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정말 순박하게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저희들을 맞이하는 그 나라 사람들의 모습에서 우리들의 마음은 녹아내렸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들에게 시급한 것은 이들의 영적인 구원이었습니다. 트럭을 타고 가다 저희들이 전도하는 것을 보고 차를 세워 맨발로 뛰어내려와 복음을 듣고 영접 기도를 하던 그들! 기도 후에 그들의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습니다.

한 소녀를 만나 "예수님 믿으세요!" 하면서 죄와 구원,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했을 때 그 소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희도 같이 울며 기도했습니다. 그 소녀가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거듭나서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바라며, 우리가 뿌린 전도지가 그들의 심령 속에 떨어져서 그들의 삶이 변화되고 가족과 친지, 나아가 나라가 변화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그들의 심령 속에 성령이 함께 하셔서 그들의 영혼이 깨어지고 변화되어 주님 안에서 비전을 보고 참된 소망의 길을 걷기를 바랬습니다. 구원의 깨달음이 이 땅의 지도자들에게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나라가 복음으로 새롭게 되어 다른 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러 왔던 것처럼 이들도 십자가를 전하러 나가는 아름다운 복음의 나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임순록 (집사, 10교구)



△ 이번 주에 출발하는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8일(월)~7월 23일(토)	고동부(4)	금호선	7월 19일(월)~7월 26일(토)	8교구 5지역	김을림
7월 18일(월)~7월 26일(화)	15교구 추가	남용철	7월 21일(월)~7월 29일(금)	9교구 추가	장승규
7월 18일(월)~7월 26일(화)	12교구 3지역	강창식	7월 22일(금)~7월 29일(금)	5교구 4지역	정태동
7월 19일(화)~7월 27일(수)	대학부(25)	이용수	7월 22일(금)~7월 30일(토)	5교구 5지역	백봉선
7월 19일(화)~7월 27일(수)	15교구 2지역	강석화	7월 23일(토)~7월 30일(토)	청년(3)	김영록
7월 19일(화)~7월 28일(목)	12교구 7지역	이양선			

△ 현재 지역 중인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11일(월)~7월 20일(수)	4교구 3지역	박원화	7월 13일(수)~7월 22일(금)	대학부(36)	한은혜
7월 11일(월)~7월 20일(수)	대학부(24)	이근호	7월 13일(수)~7월 22일(금)	대학부(29)	김형근
7월 12일(화)~7월 21일(목)	2교구 1지역	박상대			

△ 지난 주에 도착한 선교팀

기 간	팀	팀 장	기 간	팀	팀 장
7월 4일(월)~7월 13일(수)	8교구 4지역	김종홍	7월 9일(월)~7월 16일(토)	9교구 추가	이창희

* 선교 기도회가 매주 일(오후 4:00~4:40) 광림리교회에서 있습니다.

모든 성도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르며

제 이름은 브래드이고, 제 아내 이름은 트리샤입니다. 우리가 처음 한국에 오게 되었을 때, 우리는 한국에 개혁주의 교회가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그 때 한 친구가 충현교회를 소개해 주었고, 우리는 이 교회에 거의 2년 정도 출석하여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예배, 선교, 전도에 집중하고 있는 충현교회의 모습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니다.

저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도전과 열람을 받습니다(딤후 3:16, 벰후 1:3). 말씀의 어느 부분도 필요 없는 부분이 없고, 말씀의 모든 내용이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잠 30:5-6, 사 40:8).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종종 저의 삶이 바르다고 생각하지만, 성경은 이런 저의 교만한 생각에 대해서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잠언 14:12)라고 지적합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가에 대한 저의 생각만을 믿을 때, 저는 제 마음에 가득한 사악함을 망각하게 되어 죄에 빠질 것입니다. 십자가를 잊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마음은 이미 부패해 있기 때문입니다(렐 17:9).

우리가 말씀을 붙잡지 않을 때 일상 생활에서 그냥 지나치는 많은 죄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를 짓게 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들은 말씀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하기를 우리 삶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성경이 되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는 '날마다 자기들이 듣는 말씀이 과연 그러한가'(행 17:11)의 베리야 사람들처럼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해야 한다고 믿습니다. 저보다 더 연장자이거나 경험 많은 사람이 말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과연 그러한가?' 말씀을 통해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고, 진실하고, 완전한 말씀은 저에게 참 신자의 삶의 방향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주님, 진실로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지실만큼 죄인인 저를 사랑하신 주님은 결코 저에게 감당치 못할 시험을 허락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결코 부족함이 없으며 앞으로도 계속 변치 않을 것입니다(고전 10:13, 고후 12:9).



브래드(Brad) & 트리샤(Trisha)
(*) 부부는 2년 전 캐나다에서 왔으며, 현재는 각각 초등학교에서 영어교사로 일하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기다려요

저는 이번 여름 성경학교가 정말로 기다려져요. 작년 여름 성경학교 때 친구들과 말씀 듣고, 찬양하고, 성경도 재미있게 공부했던 기억이 나거든요. 거기에는 친구들과 함께 어울려서 '하하하' 웃으며 보냈던 즐거움 기억이 나기 때문이에요. 이번에는 선생님들이 기도도 많이 하고, 여러 가지 준비를 하느라 바쁘시다고 들었어요. '와' 정말로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오산에서 아마, 아빠, 동생이랑 교회를 다녀요. 그래서 평일에 교회에 오는 것이 쉽지 않아요. 하지만 여름 성경학교 때가 되면 미리 교회 근처에 있는 친척집에 가서 하룻밤을 보낸 뒤 사촌동생과 함께 교회를 갑니다. 엄마와 아빠가 바쁘셔서 교회에 데려다 주시지 못하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저는 사촌동생과 함께 자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기다리는 것이 아주 좋아요. 이번에는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하루 밤을 보낼다고 하는데... 훨씬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이번 성경학교의 주체처럼 예수님을 전하는 십자가 증인이 되고 싶어요.



김나(소녀부)

사랑하는 아들 도연아!



하나님께서 엄마의 간절함을 들으시고 우리 가정에 도연이를 선물로 주셨답니다. 어찌나 좋던지 그 기쁨을 어떻게 말로 하라마는 이 세상보다 더 나은 것보다 좋았고 정말로 기뻐한다. 도연이가 엄마 배 안에 있을 때 엄마는 천사였단다. 온 세상이 모두가 다 예쁘고 새롭고 동글동글하게 보이고 길가에 아무렇게나 피어 있는 노란 민들레, 진보라의 제비꽃, 이름 모를 풀꽃들이 어찌나 귀하하고 예쁘지 주님의 모호한 섭리에 찬탄 감동 받고 주님의 사랑에 많이 많이 감사했단다.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입가에 잔은 미소가 번지네...

어느덧 우리 도연이가 일곱 살이 되었네. 엄마는 도연이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고 있노라면 십자가 사랑에 베푸신 주님의 섭정이 느껴진다. 도연이 엄마 아빠의 가장 큰 보물이 되지 않나? 음, 뭐냐면 보석도 아니고 금도 아니고 은도 아니고 바로 우리 도연이여! 도연이가 엄마 아빠의 보물이란다. 제일 큰 보물이야. 왜냐하면, 앞으로 십자가를 전하는 주님의 귀한 그릇이 될 것이기 때문이지! 도연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믿음의 사랑으로 자라나기 계속 기도하길.

도연이의 생일을 축하하며 사랑하는 엄마가

김연민 (집사, 5교구)

소명

윤삼열 (청년1부)

종종 3부 수련회 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나 의 하나님임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부모님께서 제가 태어날 때 정남을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하셨다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제가 목회를 할 것이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았고, 부모님께서도 제가 목회를 하기 원하지 않다면 강요는 하지 않았다고 하시며 기도도 준비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앞으로 목회를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라는 생각이 들고 두려움이 들었기에 확실한 미래의 비전에 대한 결정 없이 대학에 입학하고 군대까지 제대하게 되었습니다. 항상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부담만이 있었고 목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깊이 생각할 수가 없었습니다. 점점 시간은 흘러가고 나의 비전과 나의 앞길에 대한 많은 고민과 걱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시 119:105)"라는 말씀이 나의 발등에서 비추는 등불임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자신보다 더욱 정확히 우리의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머리 위의 등불을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발 위의 등불을 허락하셨습니다. 머리 위에 등불이 있다면 멀리 볼 수 있었지만 발 위의 등불로 하나님은 우리 발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십니다. 나의 미래의 모습을 보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내 눈 앞에 있는 것을 보게 하시고 지금 있는 이 순간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충실히 따를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내가 볼 수 없는 것을 보려고 노력하다가 보지 못하여 두려워하고 힘들어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금 이 순간을 감사하고 자기를 부인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의 과정을 통해 나를 완성해 가시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어 가실 것을 믿습니다(롬 8:28). 이제 목회의 길을 걷게 하시고 부모님의 서약이 나의 서약은 아니었지만 부모님께서 그런 고백을 하도록 허락하시고 저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배우고 깨달아 십자가를 전하는 증인으로 사용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나는 날마다 주노라' 고백하였던 바울처럼 나를 비우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리스도의 제자 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방법, 어떤 모양으로 사용하시든 알 수 없지만 분명하게 나를 들어 사용하실 것을 기대하며 이 낮고 천한 죄인을 들어 사용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교회 탐방 72 새가족 양육부(열매 2반)

주 안에 거하는 기쁨

“첫 사람”이라는 말은 언제 들어도 싱겁다. 지금 주님과 첫 사랑의 감미로움에 젖어 있는 이들이 있다. 우리가 관심을 갖고 바라보는 새 가족이다. 믿는 자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다. 그러나 아무래도 새 가족에 대한 주님의 사랑만은 특별하리라 믿는다. 새 가족! 그들을 초대하여 예수님과 첫 사랑의 고백을 들어본다.

처음 예수를 믿게 된 동기는 무엇입니까?

이전에 저는 천주교인이었어요. 천주교인으로서 약간의 종교적 감동이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교회로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주님과 직접 관계를 맺는 것에 마음이 끌렸던 것 같군요. (김영선)

언니와 영부의 권유로 몇 번 영식적으로 교회에 왔지만 믿음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올레 초 우연히 기도원에 갔는데 거기서 많은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난 후에 스스로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김선옥)

강산형제가 전도하여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유주미)

서둘러 온 지 얼마 안 되어서 모든 게 낯선 중에 친구 선우이를 보고 초아서 믿게 되었습니다. (이연주)

어떤 소망감으로 새가족부 교사를 하십니까?

제가 새 가족이 있을 때, 받은 사랑이 아주 커서 저도 그 사랑으로 새 가족을 섬기려고 합니다. 이분들의 믿음이 저라기를 기대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조한글 교사)

예수님을 믿기 전과 후의 차이는?

인간으로서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고, 모든 일의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김영영)

정말 재가 포도나무에 달린 가지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김선옥)

예전에는 믿도 친구를 찾았지만 이제는 주님께 조영이 나가 기도합니다. (이연주)

자주 주님을 찾으며 기도를 많이 하게 됩니다. (김영선)



제2차 청지기 훈련 때, 느낀 점은 무엇입니까?

말씀을 통해 은혜를 받았고 특히 찬송가에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 다. (김영영)

예전에는 찬송이 찬송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청지기 훈련을 통해 찬송의 가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 다. (김선옥)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느꼈습니 다. 정말 내 발 앞의 등불처럼 말씀으로 내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 다. (김연선)

앞으로 어떤 그리스도인이 되시겠습니까?

제 자리에서 늘 주님과 함께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이연주)

주님의 뜻을 잘 알고 순종하겠습니다. (김영영)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말로만 복음을 전달하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나를 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복음에 굳게 선 그리스도인이 되어 그리스도의 평강을 몸으로 전하고 싶습니다. (김연선)

잘 나오지 않는 새 가족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은?

말씀이 언제 어디서 임할지 모르는데 말씀을 들을 기회를 놓칠까 봐 정말 안타깝습니 다. 쉬고 있는 새 가족들은 어서 빨리 나오십시오. (조한글 교사)

주 안에서 거하는 기쁨을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망명대에서 수명을 하는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 생애를 보호하신다고 고백합니다. (김영영)

양심 주님을 느낍니다. 주님은 제 필요를 채워 주십니다. (김선옥)

라일락은 양은 아름답지만 그 꽃을 먹으면 습니다. 그러나 그 꽃을 먹으면 양이 내 몸을 감싸 내가 어려움을 감수하고 주님을 받아들이면 주님이 아름다운 향기로 나를 감싸고 계시는 듯 합니다. (김영선)

이분들이 첫 사랑의 감격을 가슴에 품은 채 최후 승리의 그 날까지 거룩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편집실)

다음주일 찬송

514장

누가 주를 따라

1877년 10월 “가정 선교(Home Missions)”라는 제목으로 프랜시스 리들리 헤버갈(Frances Ridley Havergal, 1836~1879)이 쓴 찬송이다. 이 찬송의 배경은 역사상 12장 1~18절에 있는 사건이 바탕이 된다. 다윗과 기스의 아들 사울과의 싸움에서 다윗에게로 돌아온 이히에셀을 비롯한 30인의 두목 아바새가 다윗에게 속하여 다윗을 도운 발음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리스도와 사탄과의 싸움에서 과연 그리스도의 편에 설 자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면서 이 찬송을 썼다. 주의 편에 선 군대는 싸움에서 승리해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찬송시를 작사하게 된 것이다.

1절은 먼저 누가 주를 따를 것인가에 대한 질문으로 시작한다. 죄를 떠나 주님을 섬기며 주를 구하는 자리에 서서 주님을 따를 것인가에 대한 결단을 촉구한다. 그러나 그 길은 주님의 부름을 따라 가는 길이며 주의 은혜로 가는 길임을 분명하게 밝히며 우리가 주를 따를 것을 명령한다.

2절은 우리가 주님을 따를이 세상 영광을 위해 따를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한다.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크신 사랑과 은혜를 인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다. 그러기에 우리를 불러 주신 그 사랑과 은혜를 감사하여 힘써 일하며 주님을 따르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경건한 길이다.

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길에는 환난과 핍박이 많고 환수들이 끊임없이 공격해 오는 것이다. 그 길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볼 것은 예수 그리스도뿐이다. 그분의 용기, 능력을 의지하여 전리의 길을 따라갈 때 베풀어준 승리가 약속된 것이다. 그래서 모든 선도는 기쁜 찬송을 하며 주님의 은혜로 주를 따라야 할 것이고 이것이 우리 모든 선도가 드려야 할 찬양인 것이다.

역사상 12장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여 우리가 당신에게 속하였고 이세의 아들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함께하게 될 것인데 평강하시오 당신도 평강하고 당신을 믿는 자에게도 평강이 있을찌니 이는 당신의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심이니이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도우십니다. 우리가 주를 따라 섬기는 자리에 주님은 함께 하시며 우리의 도움이 되십니다. 이 승리의 주님을 의지하며 함께하 찬양하며 나가는 모든 선도가 됩니다. (한양원회)

새 가족을 환영합니다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사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사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사	번호	성명	교구 소속처	인사				
2061	윤영희	19	대북부	이혜진	2006	이영우	19	대북부	전현희	2130	오혜미	13	전남서	한수미	2164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2	최유미	19	대북부	최영희	2006	정영선	19	대북부	박민희	2131	이영진	17	전남서	한수미	2165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3	이영희	19	대북부	김민희	2007	이영희	19	대북부	박민희	2132	김영진	6	전남서	한수미	2166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4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008	이영희	7	전남서	한수미	2133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67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5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009	김민희	13	전남서	한수미	2134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68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6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0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35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69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7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1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36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0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8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2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37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1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69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3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38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2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0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4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39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3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1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5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0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4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2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6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1	이승인	19	대북부	한수미	2175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3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7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2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6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4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8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3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7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5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09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4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8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6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0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5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79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7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1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6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0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8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2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7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1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79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3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8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2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0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4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49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3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1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5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0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4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2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6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1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5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3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7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2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6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4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8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3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7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5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19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4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8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6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0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5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89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7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1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6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0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8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2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7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1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89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3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8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2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90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4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59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3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91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5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60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4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92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6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61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5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93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7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62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6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2094	김민희	19	대북부	김민희	2128	이영희	13	전남서	한수미	2163	김영진	1	전남서	한수미	2197	최민	19	대북부	박민희

시무장소				부득시				
김지현 22곡주	김영호 교과연구부	노영현 유아교육과	오진국 체육교육과	이병학 이공계 교과연구부	정철현 교과연구부	박인기 체육교육과	류병희 22곡주	김영훈 체육과
임필식 유아교육과	이 훈 창의교육과	남수호 창의교육과	김우경 창의교육과	김중구 창의교육과	여국근 창의교육과	나영평 창의교육과	정진호 창의교육과	김용덕 창의교육과
최무길 체육과	기성호 체육과	차신복 체육과	김강남 체육과	이종식 체육과	고광현 체육과	위찬광 체육과	김인환 체육과	장 훈 임현덕
안동욱 갈매리	임두원 15.2곡주	이갑재 기체위	전홍용 기체위	전홍열 기체위	이희식 기체위	최종철 기체위	한진원 기체위	정종신 기체위
이정우 15.2곡주	김단용 15.2곡주	한송규 15.2곡주	김영수 15.2곡주	김한기 15.2곡주	양재호 15.2곡주	이성진 15.2곡주	조호찬 15.2곡주	최성규 15.2곡주
윤원철 15.2곡주	이형수 15.2곡주	안동현 15.2곡주	황다만 15.2곡주	김구형 15.2곡주	이경준 15.2곡주	이창수 15.2곡주	김준희 15.2곡주	유수진 15.2곡주
최윤덕 15.2곡주	이계인 15.2곡주	박덕양 15.2곡주	이태식 15.2곡주	장태두 15.2곡주	정성영 15.2곡주	이정훈 15.2곡주	김대식 15.2곡주	김성훈 15.2곡주
박용규 15.2곡주	권명옥 15.2곡주	조종현 15.2곡주	배준식 15.2곡주	김영달 15.2곡주	정원외 15.2곡주	신동주 15.2곡주	윤인숙 15.2곡주	한영준 15.2곡주
이성호 15.2곡주	최희준 15.2곡주	노영현 15.2곡주	정창길 15.2곡주	정창길 15.2곡주	홍순애 15.2곡주	이옥구 15.2곡주	김갑자 15.2곡주	안태순 15.2곡주
신상수 15.2곡주	고재승 15.2곡주	강철형 15.2곡주	김영은 15.2곡주	이달옥 15.2곡주	조옥자 15.2곡주	강덕철 15.2곡주	최본식 15.2곡주	전은희 15.2곡주
정철환 15.2곡주	김소진 15.2곡주	함철근 15.2곡주	유석진 15.2곡주	정선현 15.2곡주	김정자 15.2곡주	이수경 15.2곡주	김경희 15.2곡주	이복순 15.2곡주
안석연 15.2곡주	김현근 15.2곡주	김강국 15.2곡주	김종진 15.2곡주	임창식 15.2곡주	한성일 15.2곡주	임태두 15.2곡주	강영미 15.2곡주	육옥자 15.2곡주
김은철 15.2곡주	전하영 15.2곡주	김신국 15.2곡주	전하식 15.2곡주	김형근 15.2곡주	■ 찬양감독 김영구	■ 전담지원자 서운성	■ 김원섭	■ 전담교장자 김소연
장승국 15.2곡주	전은비 15.2곡주	서영식 15.2곡주	구재환 15.2곡주	송두희 15.2곡주	■ 전담교장자 김소연	■ 전담교장자 김소연	■ 전담교장자 김소연	■ 전담교장자 김소연